

# 〈한강현전(韓江賢傳)〉의 현실인식과 그 형상화 방식

강 인 범\*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한강현전>의 현실인식과 주제의식  |
| 2. 2·3대 중심의 3대담 구성 | 5 필사기를 통해 본 17세기 독서상황 |
| 3. 다양한 삽화의 설정      | 6 결 론                 |

## 1. 머리말

〈한강현전〉은 한강현 일가의 4대에 걸친 가문의 위기와 그 극복과정, 벌벌 화를 묘사하고 있으며, 약 44,000여 자의 분량으로 중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한강현전〉은 현재 3개의 이본<sup>1)</sup>이 전하고 있으며, <다곡본>의 경우 작품 말미에 필사자의 필사기가 첨부되어 있어 이 작품이 17세기에 창작되었음을 추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1) 현재 <규장각본>, <영남대본>, <다곡본>이 전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이름이 <다곡본>과 <규장각본>에는 '한강현'으로, <영남대본>에는 '한강한'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으로는 <다곡본>과 <영남대본>이 유사하며, <규장각본>은 특이한 면모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강현전'이란 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곡본>을 주 대본으로 삼는다.

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sup>2)</sup> 17세기에 이르러 고소설은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기소설과 동유록은 입란의 경험을 작품 내에 반영하면서 새로운 변모를 모색하였으며, 특히 장편소설의 출현은 우리 문학사에서 본격적인 소설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장편소설의 모습과 그 출발점을 찾는 연구는 소설사의 전환기인 17세기 소설의 흐름을 밝히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이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씨남정기>·<창선감의록>·<소헌성록> 등은 주제나 창작 방식에 있어 여타 소설군과 차별된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후대의 장편소설에 결코 손색이 없는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17세기 중반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현전>을 중심으로 장편소설의 초기적 모습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현전>은 그 제목에서 ‘<○○전>’ 계통을 있는 듯 하나, 작품의 구조와 삽화 등 여러 면에서 장편소설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은 장편소설의 여러 특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란 체험과 임병양란 이후 당대 사회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강현전>에 대하여는 그 창작시기에 대한 검토와 인물,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대략 5편 정도이다. 엄규현<sup>3)</sup>은 영남대본 <한강한전>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상 작품의 전반부는 이부인의 효열을, 후반부는 한강한의 인애를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 명기되어 있는 갑자년(甲子年)을 1684년으로 추정하고, 작품의 내용과 방언의 쓰임으로 보아 영남지방 여성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는 <한강한전>의 인물이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한 것은 유복자 가문에서 가문의 번창을 기하기 위해서였으며, 충효열과 인애를 생활화하여 가문을 창달하는 데 주제를 두었기 때문에 악인의 등장으로 인한 시련과 갈등의 이야기

2) 17세기 소설사의 양상에 대해서는 김대현(『17세기 소설사의 한 연구-전기소설의 변이양상과 장편화의 경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강상순(『전기소설의 해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최기숙(『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의 논의 참조.

3) 엄규현, 『한강한전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가 사건구조에 불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수봉<sup>4)</sup>은 <한강현전>의 특징을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조가 없으며, 모든 인물들이 인애와 충·효·열을 근간으로 한 가문창달을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을 '당대형 가문소설'로 정의하고, 작품 말미의 필사기(세당 승정 기원후 병진)를 통하여 작품의 필사 시기를 1676년, 즉 숙종 2년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이 작품이 <구룡전>이라는 후속 작품으로 연작되고 있음을 밝혀 <한강현전>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송진한<sup>5)</sup>은 <한강현전>을 연의소설의 영향을 받은 영웅전기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부인과 강현의 삶으로 나뉘는 내용의 분리양상이 비록 분회(分回)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연의소설의 양식적 특징인 회장체의 발전이라 하였다. 그리고 <한강현전>에 나타난 수평적 갈등과 내적 갈등의 복합이 영웅전기유형의 갈등양상 복합에서 영향 받은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순우<sup>6)</sup>는 <한강현전>에서 부부관계를 부모에 대한 효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부관계가 부자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강현은 부자관계를 인륜도리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초기 가문소설에 이러한 남성상이 등장하는 것은 가문사회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인석<sup>7)</sup>은 영남대본 <한강현전>과 <다곡본>·<규장각본>을 비교하여, 규장각본이 다른 두 이본보다 자세하고, 양씨의 후일담이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강현전>이 유복자 집안의 역경과 가문 창달을 핵심 소재로, 선악갈등의 부재 속에 전란을 통한 가문의 위기와 창달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2대 이씨의 열절과 3대 한강현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강현전>은 1676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필사되어 유통되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실상에 대한 세밀한

4) 이수봉, 「<한강현전> 연구」, 『과전 김무조박사 화갑기념논총』, 동 간행위원회, 1968.

5) 송진한, 「조선조 연의소설의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993.

6) 이순우, 「초기 가문소설에 나타난 夫(부)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7.

7) 서인석·권미숙, 「영남대본 <한강현전> 해제 및 주석」, 『국어국문학연구』 26집,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1998.

가 사건구조에 불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수봉<sup>4)</sup>은 <한강현전>의 특징을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조가 없으며, 모든 인물들이 인애와 충·효·열을 근간으로 한 가문창달을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을 '당대형 가문소설'로 정의하고, 작품 말미의 필사기(세당 승정 괴원후 병진)를 통하여 작품의 필사 시기를 1676년, 즉 숙종 2년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이 작품이 <구룡전>이라는 후속 작품으로 연작되고 있음을 밝혀 <한강현전>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송진한<sup>5)</sup>은 <한강현전>을 연의소설의 영향을 받은 영웅전기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부인과 강현의 삶으로 나뉘는 내용의 분리양상이 비록 분회(分回)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연의소설의 양식적 특징인 회장체의 발전이라 하였다. 그리고 <한강현전>에 나타난 수평적 갈등과 내적 갈등의 복합이 영웅전기유형의 갈등양상 복합에서 영향 받은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순우<sup>6)</sup>는 <한강현전>에서 부부관계를 부모에 대한 효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부관계가 부자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강현은 부자관계를 인륜도리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초기 가문소설에 이러한 남성상이 등장하는 것은 가문사회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인석<sup>7)</sup>은 영남대본 <한강현전>과 <다곡본>·<규장각본>을 비교하여, 규장각본이 다른 두 이본보다 자세하고, 양씨의 후일담이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강현전>이 유복자 집안의 역경과 가문 창달을 핵심 소재로, 선악갈등의 부재 속에 전란을 통한 가문의 위기와 창달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2대 이씨의 열절과 3대 한강현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강현전>은 1676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필사되어 유통되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실상에 대한 세밀한

4) 이수봉, 「<한강현전> 연구」, 『파전 김무조박사 화갑기념논총』, 동 간행위원회, 1988.

5) 송진한, 「조선조 연의소설의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993.

6) 이순우, 「초기 가문소설에 나타난 夫(부)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7.

7) 서인석·권미숙, 「영남대본 <한강현전> 해제 및 주석」, 『국어국문학연구』 26집,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1998.

문에 2대 이씨와 3대 한강현 모자의 활약이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전반부는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인 위씨와 이씨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1대에 해당하는 한타는 청렴강직한 인물로 나이 50이 되도록 부인 위씨와의 사이에 일점혈육이 없던 중, 부인이 태기 있음을 알고 기뻐하지만 부인이 자녀를 낳기 전 우연이 병을 얻어 끝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한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부인에게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취양(取養)’하여, 자신의 사후 가문의 뒤를 이을 것을 강조한다.

위씨는 상(喪) 중에도 태아를 위해 의연하게 대처한다.<sup>10)</sup> 위씨는 남편을 대신하여 가문을 이끌고, 유복자 진한이 가문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손수 글을 가르치고 검소함으로 엄하게 교육하는 등 ‘아버지의 부재’와 가문의 존립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가장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위씨는 진한이 입공을 통해 가문을 창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한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전하여 가문의 향화가 끊기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sup>11)</sup> 진한의 탄생과 입공을 통한 한씨 가문의 절손(絶孫) 극복은 진한이 전사함으로써 가문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

2대 진한은 모친에 대한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스승인 이경복이 유자와 약과를 주었을 때,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며 먹기를 사양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모친의 곁을 떠나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진한의 유서는 홀어머니를 두고 먼저 죽는 아들의 고통과 효를 보여준다. 위씨와 진한에게 있어 충이나 임신출세, 이를 통한 가문 창달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진한과 위씨의 삶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절손의 위기와 유복자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준다.

한진한의 부인 이소애는 전승상 이경복의 무남독녀로, 경복에게 수학하던

10) 부인할, “니 승공의 경계를 잊지 안이하노니, 자연 마암이 벼라난흔 고로 이렇듯 감하니 중춘 잊지 하ियो? 네 육집을 중만하라. 오날부터 용늑하리라.”

11) 한진한의 경우에도 벼슬을 통한 가문의 영달이나 번영은 애초 중심과제가 아니었다. “훈심니 과거하여 벼살이 학스인 잇든니 부모미 효헝하물 생각하여 나락의 상소하여 벼살을 잘고 집이 도라왔든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한에게 있어 최고의 목표는 자신을 유복자로 키운 모친에 대한 효의 실천이었다.

한진한과 혼인한다. 한진한이 태어나 절손의 위기를 면한 한씨 가문은 이씨를 맞이들이면서 가문의 안정을 얻는 듯 했으나, 뜻하지 않은 진한의 전사(戰死)는 가문을 더욱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한다. 이씨가 남편의 유골을 찾아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편의 장례 후 아들을 잘 키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삼았던 위씨와 달리, 이씨에게는 남편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하는 임무까지 주어진다. 2대 이씨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은 위씨와 비교하여 더욱 심각한 모습이다. 이씨가 남편의 유골을 찾아 떠나는 대목은 한씨 가문에 닥친 고난, 가문의 주인으로서의 여성에게 닥친 고난이 더욱 극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육남과 춘향니 울며 엇조오더, “부인니 십 리 밧글 보지 못하고 엇지 말니를 가시릿가? 짝지로서 호날을 견유리오? 쏘호 의 집 쥬조은 부인뿐니라. 만일 부인니 불헝호를 당호오면 사당을 뉘 밧드릿가? 리씨 눈물을 흘니고 왓, “너의 힘을 다호여 저 공조를 잘 기루면 호시 사당의 향취을 이을 썸시니 ㅅ난 너의 충심시오. 너 낭군의 헝골을 츠사 선산의 장스호면 이난 너의 절헝니라. 더저 스싱은 명의 이시니 설스 불헝호여 죽어도 절헝을 쏘다가 죽으면 엇지 당헝치 아니호리오? 너회는 일시 중령호를 이로거니와 나난 이미 더의을 정호여시니 다시 간치말나.” 육남과 춘향니 다시 할 일읍서 물너 나니라.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문의 보존을 강조하는 시비들에게, 이씨는 남편의 유골을 찾아 안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절을 강조한다. 시비들은 이씨가 떠나야 하는 먼 길이 여성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며, 이씨에게 최선의 행동은 시어머니인 위씨처럼 치가(治家)와 강현의 양육에 힘쓰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씨는 시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유골을 찾아 떠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직 가문 내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효와 남편에 대한 열을 최고로 알던 이씨에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잇따른 죽음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절행(節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시비들에게 있어 외유(外遊) 경험이 없는 이부인의 결심은 현실적 여건은 무시한, 남편에 대한 절을 강조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남편의 유골을 찾아 떠난다.

이씨가 남편의 유골을 찾아 떠나는 과정은 이 시기 창작된 <속향전>·<사

씨남정기> 등에서 보이는 '여성수난'과 유사하다. '여성수난 구조'는 가문소설과 애정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삽화로서, 수난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 주인공들은 자신의 결백이나 자신이 시댁에 합당한 인물임을 증명한다.<sup>12)</sup> <한강현전>에 나타나는 이씨의 수난은 악인의 모해에 의해 내침을 당하거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고행이다. 이씨의 수난은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남편의 유언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씨는 이 과정을 통하여 가문의 당당한 가장<sup>13)</sup>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는 '가문의 존속과 창달'이라는 명제가 비단 남자들만의 것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것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이씨는 시아버지의 현현(顯現)과 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유골을 찾고, 작품 결말까지 생존하여 가문의 번영과 영화를 누린다.<sup>14)</sup>

한타·진한·강현의 삶을 살펴 볼 때, <한강현전>에서는 1대 한타의 죽음을 제외한 진한의 죽음과 이부인의 고난, 강현의 입궁 등 중요 사건이 남주인공의 전쟁 참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특히 진한의 죽음은 전쟁에서의 급작스

- 12) '여성수난구조'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문제 해결의 과정에 열의 상징인 아황·여영 혹은 시부모가 현몽하거나 신인(神人)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 경험과 그 해결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체험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3) 이와 같은 이씨의 형상에 대해, 정창권은 "여가장의 문학적 형상화는 17세기 <한강현전>과 <소현성록>에서부터 비롯되어 이후 장편 여성소설의 특징적인 모티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103면 주) 184.
- 14) 남편의 유골을 찾아 온 이씨는 자결을 결심하는데, 이때 이씨의 결심을 막는 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편지이다.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는 이씨에게 그 절행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 있을 것이며, 이를 반드시 누리라는 내용이다. 조상으로 부터 받은 후손에의 약속이 이씨로 하여금 남은 생을 살아갈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주체의식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용호는 삼대록에 나타나는 1대인물에 대하여 "제1대 인물들은 처음부터 결코 실수가 없는 완성된 인격체로 등장하며, 가문의 장로들이 신진 세대들에 비해 훨씬 느리게 나이를 먹어간다. ... 작가는 가문의 장로들이 가문의 융성과 영화를 이룩하기 위한 씨를 뿌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 결과까지도 보아야 할 것이라는 강박적인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용호, 『삼대록 소설의 인물구성』, 이수봉 외 공저,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Ⅲ, 경인문화사, 1999). 이처럼 이씨는 작품 말미까지 생존하여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문 창달의 기틀을 마련한, 진정한 의미의 1대에 해당한다 하겠다.

런 죽음이라는 점에서 이미 겪었던 절손의 문제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이끈다.<sup>15)</sup> 그런데 전장에 임하는 두 인물의 형상은 여타의 소설에 나타나는 영웅적인 형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진한은 가달의 난을 맞아 최간의 중군장으로 전장에 출정하지만, 최간이 적과의 싸움에서 배수진을 치으로써 적의 매복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진한의 모습은 후에 가달의 난을 평정하는 원종필의 모습과 대비된다. 이에 비해 강현은 “천상 즈미성니 인간이 적거”한 인물로, 부친과 달리 어려서부터 병서와 육도 삼략을 공부하여 입신출세의 기틀을 닦는다. 강현의 영웅적 면모는 서달의 난에 적을 격서 한 장으로 굴복시키고, 복변의 순무어사로 탁용되어 일년 안에 지역을 순후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극대화된다. 강현은 한씨 가문의 중흥 주로서, 입공과 아홉 아들의 출생을 통하여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한강현이 과거에 급제하여 연왕에 오르기까지 아무런 정치적인 갈등이나 가문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강현의 혼인과정도 이를 잘 보여준다. 강현은 석상서의 딸 석씨와 혼인한 후, 강현을 마음에 들어하는 초왕의 청과 초국공주의 결심을 따라 혼인한다. 장편소설에서 공주가 하가(下嫁)한 경우, 공주가 쟁송을 일으켜 가문의 큰 화란을 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6)</sup> 그런데 <한강현전>에서는 석씨와 공주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덕에 철저히 투기나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가문의 화합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보여준다. <한강현전>의 관심은 “17세기 후반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과 그로 인한 벌멸화 내지 가문의 몰락을 겪는 조선의 현실을 연상시켜”<sup>17)</sup>주는

15) 엄규현은 “진한의 죽음은 이부인으로 하여금 효와 열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고, 그 지성에 하늘이 감응하여 혼령과 말이 등장하였으며, 주인공 강현(현)의 인애사상에도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은 주제를 향해 집약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엄규현, 앞의 논문, 49~52면). 이수봉도 한진한의 죽음이 이부인의 절과 강현의 충효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한 바 있다(이수봉, 앞의 논문, 181면). 그러나 진한의 죽음은 이부인의 열과 강현의 인애사상을 고조시키는 이상의 현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의식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16) <소현성록>의 명현공주, <벽허담판제언록>의 숙영공주 등 늑혼에 의한 가문 내적 갈등은 장편소설의 주요 삽화의 하나이다.

17) 장효현, 「장편국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전」, 이수봉 외 공저, 『한국가문



<창선감의록>이나 가문 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규방여성의 욕구를 기반으로 형성된”<sup>18)</sup> <소현성록> 연작 등 같은 시기의 작품들과 다르다. <한강현전>은 잇따른 가부장들의 죽음과 이에 대처하는 부인들의 삶, 자손들의 삶, 여동생 양소저의 영입을 통해 절손 위기 극복과 유복자애의 애착을 보여준다. <한강현전>은 정치적 대립이나 가문 내의 다양한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의 병사(病死)와 전사로 심화되는 절손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강현전>이 정치적 갈등이나 부부갈등, 처-처 갈등과 같은 가문 내적인 문제를 그 서사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강현전>은 같은 시기 가문소설들과 달리, 당대인들의 관심사였던 전란 체험을 소설에 수용하여 전란에 얽히는 인간·가문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중요 사건인 진한의 죽음과 이부인의 외유, 전란 참상에 대한 묘사, 다양한 삽화의 채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 3. 다양한 삽화의 설정

<한강현전>은 ‘의마(義馬)전설’에서부터, 시아버지의 현현, 늑흔, 계모박대담에 이르기까지 후대의 장편소설에 보이는 다양한 삽화들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 모자의 대화 등 일상생활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삽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삽화에 대하여 이수봉은 ‘의마전설’과 ‘시아버지의 현현’이 <한강현전>의 소설적 재미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9)</sup> <한강현전>의 다양한 삽화 수용은 작품의 소설적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작품의 분량을 확장시키고 작가가 의도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도록 가능하다. <한강현전>이 인물간의 선악갈등이 없이 작품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삽화를 통하여 이씨와 강현의 삶을 효과적으로 묘

소설연구논총」Ⅲ, 경인문화사, 1999, 30면.

18)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19) 이수봉, 앞의 논문, 185면.

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의마전설'과 시아버지의 현몽 외에 <한강현전>에 나타난 다양한 삽화들을 흥미적 삽화와 일상적 삽화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흥미적 삽화

㉑ (진한이) 심각하여도 사지 못할 줄 알고 한삼을 써여 흐른난 피을 뭇 천 니씨겨 편자를 써 맡겨 붓쳐며 왓, "나난 불행하여 이곳의 와 고히니 될 지라도 너 비록 증삼이나 나와 동공하면 지 삼연이라. 이 구구한 사정을 비록 차상이 못하나 집의 도라가 전하며 응당 알지라" 하고 일성통곡의 명이 진한니 그 말이 받노 모리를 집피 파고 학사를 무든 후의 서전을 하하여 우다가 본 점으로 도라간이라.

㉒ (이씨가) 이러나 말을 어로만져 왓, "네 비록 짐삼이나 말리 전중의 가 천신만고하다가 듀인은 비록 [죽]어시나 천상만수 흥흔 길을 어이 온드?" 하며, 말을 안고 실피우니 그 말이 쏘흔 누물을 흘니더라.

㉓ 리씨 말 압피 나아가 말을 어로만져 왓, "너 남군의 뺨골을 초치려 하니 너를 두고 가려하니 네 비록 금슈나 금슈줄 왓니 노든 길을 알 듯 하니 안다 흥겨든 고기를 드려 힘히고 모른다 흥겨든 응치말나." 그 말리 죽시 고기를 드려 응겨날 ... 그날 석양을 당하여 말리 가지 아니흥겨날 리씨 왓, "고히흥드, 드른 길노 가려흥는가?" 하며 말짜려 경기흥여 왓, "너 갈 기리 달나 가지 아니흥야?" 말이 응겨날 막석을 뒤의 짜트라하고 제 가난더로 두니, 그제야 말이 거름을 잘 거드라

㉔ 말이 서고 가지 아니흥겨날 리씨 고이허흥여 말짜려 무려 왓, "이 뜻의 니리라 흥냐?" 말이 고시시기를 응겨날 리씨 말게 나리니 그 말이 바로 모리를 파겨날 ... (이씨) 말짜려 일너 왓, "이 희골이 학사의 희골된다? 학사 죽어던 너 이곳의 못고 왓나냐? 험々 흥 여즈뭇니 너를 타고 말니 밧게 오문 학스의 희골을 위흥미라. 허다흔 희골의 어난 곳시 학스의 희골 될줄 알며, 너 비록 짐삼이나 일죽 학스님 니곳의 죽은 줄 알겨시라. 만일 이도 모를쨌던 너 츠즈르리 이곳의 죽어 학스의 고히을 위로흥고, 희골 착기 지사허리니 그간 실상을 알기허라" 하니, 말이 쏘 말을 두고 두 무릅뽀뽀 싹고 흥 목으로 크긴 우니, 눈물니 비짱갓드라.

<한강현전>에서 영리한 말이 주인의 시신을 묻고 부인을 도와 유골을 찾아오는 삽화는 시아버지의 현몽과 함께 이씨가 남편의 유골을 찾아오는 과정

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㉑은 말이 주인의 임종을 지키고 주인의 시신을 묻고 슬피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대목이다. 집에 돌아온 말은 이씨가 남편의 유골을 찾아 떠나는 길에 안내자가 된다. ㉒와 ㉓에서 말은 이씨가 남편의 유골을 찾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㉔에서 진한의 무덤에 도착한 말은 주인의 유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큰소리로 울부짖고, 주인의 유골과 부인을 모시고 무사히 집으로 귀환한다. 이러한 말의 신이한 모습은 여타의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강현전>만의 특이한 설정이다. 충성스러운 동물이 인간을 돕는 유형의 설화는 다양한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말의 신이한 형상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전쟁과 관련된 말의 설화나 신화 계통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말은 예로부터 제왕의 출현을 알리는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금와왕·주몽·혁거세의 보호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구세주인 아기장수 전설에 등장하는 용마는 이러한 말과 관련된 전승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또한 말은 권세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상계와 천상계를 왕래할 수 있는 존재라 하여<sup>20)</sup>, 일부 지방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다. 말은 그 꾀에 벽사력(辟邪力)이 담겨 있고 부의 재생산을 가져오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의리와 충절의 상징<sup>21)</sup>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엄규현은 “<한강현전>이 창작되던 당시에는 말에 관련한 설화들이 유포되어 있었을 것이며, … 말에 관련한 설화를 본전의 작가는 원용하였으리라” 추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문민(李文敏)의 신원설화(伸冤說話)에서 찾았다.<sup>22)</sup> 그러나 이것은 논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원의 과정에서 말이 스스로 길을 안내했다는 면이 유사할 뿐이며, 이 작품에 나타난 말의 성격과는 다르다. 말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실제 임병양탄과 관련하여 주인의 시신을 찾아 온 의미에 관련된 상당수의 설화가 전하고 있다.

20) 표인주, 「민속문화에 나타난 말의 의미」, 임동권 외, 『한국의 馬 민속』, 집문당, 1999.

21) 말의 민속적 의미와 설화에 대해서는 김종대의 책(『대문 위에 걸린 호랑이』, 다룬세상, 1999, 84~107면)을 참고하였다.

22) 엄규현, 앞의 논문, 53~55면.

“입진왜란 때, 가등청정(加藤清正)이 거느리는 일본군이 함경남도 보청(甫靑)에 이르렀을 때다. 박 장군이라는 이가 여러 동지들과 같이 전장에 나아가 싸우다가 불행히도 전사하자 박 장군의 탕던 말은 자기 주인의 시체를 물고 주인집까지 찾아 와서는 합성을 지르고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꾸러져 죽고 말았다. 그때 잠자고 있던 박 장군의 집안 식구들이 문 밖에 나가 보니 전진에 팔을 흘린 채 거꾸러져 죽어 있는 말과 박 장군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이것을 본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리하여 그 말을 참으로 의로운 말이라고 하여 박 장군의 무덤 곁에다 물고 이를 ‘의마총(義馬塚)’이란 비석을 세워 주었다고 한다.”<sup>23)</sup>

위의 이야기는 ‘의마총’에 관련된 설화이다. 이 설화는 주인을 따라 출전한 말이 죽은 주인의 시신을 집에 물고 돌아온 후 죽었다는 점에서 여주인과 함께 주인의 시신을 찾아 떠난 <한강현전>의 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충성스러운 말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그런데 김종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sup>24)</sup>, 대개 말과 관련한 설화는 전쟁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인공이 장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충성스런 동물들에 얽힌 설화와 다른 전승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전란을 배경으로 말과 관련된 설화는 이 외에도 자결한 충신 김응서의 목을 물고 바다를 건너 용강땅까지 가 주인의 죽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의마전설<sup>25)</sup> 등이 전한다. <한강현전>에서 말은 죽음과 삶, 현실과 이계(異界)를 연결시키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은 이씨의 위험한 행로를 돕는 안내자이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의 만남을 가능케 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한강현전>은 전란 후 널리 전승되어 당대인들에게 익숙하던 ‘의마전설’을 수용하여, 작품 전반부의 주요 사건인 진한의 전사와 이씨의 절행을 연결시키는 작품의 중요 모티프로 이용하고 있다.

□ 창안벽발이 서안을 의지하여 안즈짜가 리씨을 보고 반기난 빗치 잇거 날 리씨 나아가 절하고 왈, “이지 부르시물 입수와 선경을 이르오니 황공무 지로소니라.” 노인 왈, “니 그더 ♀인과 평일 친흐든니 서로 괴별호 지 호마 이십 연연이라. 그 스의 무스훈야?” … 노인 왈, “니 그더 조흔 음식을 만나 먹었는지라” 호거날, 리씨 왈, “소즈의게 음식을 만나 먹웃다 호시니 송시는

23)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460면. 김종대, 앞의 책, 100면에서 재인용.

24) 김종대, 앞의 책, 101면.

25) 소재영,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국학연구원, 1980, 216면.

의논치 말고 꿈의도 한 번 봐옵지 못하겠든 엇지 이렇듯사 기념하시니까?” 노인 왈, “너 그대 부모 음식을 만나 먹었노라. 말니 지리하니 허물치 말고, 동밤니 밭고져하니 밤비 도라가라. 그러나 길을 헛할 제 그 말 가는 도로 가면 소원을 이루어 도라오리라” … 막석니 々러안즈 가로더, “너々 안즈 도라오시기를 기다다드니 호련 잠니드려 꿈의 선더감니 와서 … 그제야 부인니 아부임인줄 알고 풍증을 향하여 절하고 노인과 슈작흔든 말을 이루니 막석니 왈, “부인임 정성니 지극호오니 선더감임니 감동호섯도소니다.”

② “만니 증의 왕반은 잘호여스니 당형호드. 너 두 손 약을 띄여 너을 구호문 향화를 끈치 아니고저 호미다. 네 절행을 옥황니 감동호스 슈복죽 즈지호는 성신의게 분부호여 목숨을 일기를 더호고 슈복을 무량호기 호여시니 엇지 원수를 거역호리요? 부지럼시 죽지 말고 천운을 슈수호여 손익을 잘 길여 빅스천손을 불거시라…”

말과 함께 이씨가 남편의 유골을 찾아 돌아오는 과정에 시아버지와 칭의동자가 네 번 현현한다. ㉑에서 남편의 유골을 찾아가던 이씨에게 시아버지가 나타나 음식과 약을 주면서,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갈 것을 지시한다. 시아버지의 현현은 조선(祖先) 봉사(奉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씨의 절행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씨는 시아버지의 현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확신을 얻게 되고, 이는 이씨가 중시하는 당대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㉒는 남편의 유골을 찾아 온 이씨가 절을 지켜 죽으려할 때, 동자가 전해준 시아버지의 편지 내용이다. 한진한은 이씨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많은 복을 내렸으니, 부질없는 죽음을 택하지 말고 강현을 잘 키워 가문의 번영을 누릴 것을 당부한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가문을 위한 희생에는 조상의 도움이 따른다는 당대인들의 소박한 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한강현전>에 나타나는 시아버지의 현몽은 의지할 데 없는 이씨를 보호하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sup>26)</sup> 시아버지의 현현은 이씨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부인의 절행이 현실적 보상으로 이어짐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적 가치를 긍정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sup>27)</sup>되고 있다.

26) <한강현전>에 나타난 시아버지의 현몽은 <사씨남정기>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사씨가 교씨의 모함으로 유씨 집안에서 쫓겨나 시부모 모 곁에 머물던 중 시부모가 현몽하여, 두부인의 편지가 가짜이며 앞으로 7년 백운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27)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8, 한

<한강현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삽화는 초왕에 의해 발생하는 늑혼(勒婚)삽화이다. 그러나 <한강현전>의 늑혼삽화는 여타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늑혼삽화, 즉 부마간택을 소재로 하여 17세기 당시 왕권과 신권의 문제를 제기한 장편소설들<sup>28)</sup>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강현의 뛰어난 자질에 반한 초왕은 황제에게 강현과 공주의 결혼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강현은 이미 석가에 허혼하여 자기 마음대로 혼례를 물릴 수 없음을 주장하고, 황제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sup>29)</sup> 초왕에게 공주와 강현의 혼례를 포기하라고 결정한다. 그러나 공주는 강현의 인물이 뛰어난 인물인데다 이미 강현과 혼사의 말이 있었음을 들어 다른 데 시집가지 않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sup>30)</sup> 강현은 혼인을 허락하고 석씨와 공주를 통해 아홉 명의 아들을 얻는다. <한강현전>은 늑혼삽화를 통하여 절손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한씨 가문의 별얼화를 확고하게 이룬다. 이순우는 <규장각본>의 늑혼삽화에 ‘제가(齊家)의 문제’가 드러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31)</sup> 그러나 석씨와 공주가 한씨 가문에 들어 온 이후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강현전>에 나타나고 있는 늑혼삽화는 제가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가 아닌 절손의 위기를 극복한 한씨 가문의 변영-다자(多子)-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

국고소설학회, 1999, 73면.

- 28) 심재숙, 「고전소설에 나타난 늑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891면.
- 29) 초왕 짜려 왈, “이미 석가와 정호였거날 이지 국세를 밋고 남의 길스를 저지호미 울치 아니호니라. 다른 디를 구혼호라.”
- 30) “소여 이미 혼가의 스릅니다. 엇지 다른 디 구혼호시난잇가?” 왕 왈, “네 엇지 이른 말을 호는요?” 공주 왈, “전일 부친니 ‘공주의 비필 정호섯다’ 호시니 모킨니 문왈, ‘니 집이니까?’ 호은즉 부친임 말씀니 ‘한강현니라’ 호시드니 어찌 그러 호은 말씀 을 이려 제신잇가?” 왕 왈, “니 석가의 정혼호 줄 모르고 호 말이라. 엇지 글노 허물호며 시비되리오?” 공주 왈, “당초이 정혼호 줄 모르고 말씀호도 이도 또한 천연니오, 상서 미구이 승상될 거시오, 또한 왕위를 바들 스릅이라. 엇지 일체 늘거리오? 이제 천만 곳의 구혼호여도 소년 죽기로서 다시 가지 아니씨시니 부왕은 다시 생각호옵소서.”
- 31) 이순우, 앞의 논문, 32면. 이부인이 석부인에게 공주와의 혼사문제를 묻도록 제안하는 것은 <규장각본>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한강현전>의 창작 당시의 설정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승과정의 후대적 변모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

강현은 복변 순무어사로 갔다오는 과정에 물에 빠진 양소저를 구하여 형제의 의를 맺는데, 이러한 장면은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이 하광 순무어사로 갔다오는 길에 도적들로부터 탈출한 윤씨를 거두어 형제의 의를 맺는 이야기와 흡사하다.<sup>32)</sup> 그러나 양소저 이야기는 여기에 계모박대담을 연결시키면서 여타 장편소설·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계모 박대담과는 다른 의미를 보여준다.<sup>33)</sup> 양소저는 원래 양통관의 딸인데, 계모 권씨의 계교로 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양소저가 권씨의 계교로 인해 위기에 처하는 계모박대담은 장편소설과 계모형 가정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삽화이다. 이러한 계모박대담이 본격적으로 소설에 수용되는 것은 <한강현전>이 처음으로 여겨지는 데, 강현은 물에 빠진 양소저의 오갈 데 없는 처지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보낸다.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강현은 양소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예에 어긋날까 조심하고, 양소저는 이런 강현의 모습에 감복한다. 이를 통하여 곤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너그럽게 도우면서 예에 충실한 강현의 모습이 더욱 부각된다.

집에 돌아온 강현은 자신이 형제가 없음을 들어 양소저와 형제의 의를 맺도록 모친에게 허락을 받는다. 이후 천자가 태자에게 아들이 없음을 걱정하자 강현은 양소저의 현숙함을 들어 양소저를 천거하고, 양소저는 태자비가 되어 두 아들을 낳는다. 양소저는 두 아들을 낳음으로써 천자의 절손을 막아 국가의 대를 잇고, 한강현의 네 아들이 급제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한가의 벌멸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강현전>의 양소저 이야기는 악한 계모에 대한 징치나 선한 전처 소생의 영달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강현의 군자로서의 풍모를 강조하고 한씨 가문의 창달에 기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강현전>은 이

32) 강현이 과거시험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유복자 혹은 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한 경우-의 동료들을 위해 대신 답안지를 써준다. 이러한 모습은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섯 명을 위해 답안을 써준 것과 동일하다. 과장(科場) 삽화의 유사성에 대해 박영희는 “아비 없는 자의 슬픔과 孝悌의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101면.

33) 앞서 서인석의 지적처럼 <규장각본>에는 작품 결말부에 양소저가 황후가 되어 자신의 동생을 찾는 이야기와, 악한 계모 권씨와 선한 아들이 이복 누이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 계모에 대한 징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양소저의 사건-계모박대담-에 대한 선명한 해결을 요구하던 취향을 반영하는 <규장각본> 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러한 설화나 당대에 독자에게 익숙한 삼화를 수용함으로써 작품의 흥미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한가의 위기 극복과 가문 창달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2) 일상적 삽화

<한강현전>은 가문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면모, 예컨대 질병, 술에 대한 질책, 후손에 대한 애착과 효 등을 수용함으로써 섬세한 관찰력을 드러내고 있다.<sup>34)</sup> 이를 통하여 가문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작품의 현실감을 확대시키고, 흥미와 교훈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① 석씨 칩을 보다가 승승 오시물 보고 이러나 마즈 좌을 정홀시 으히 잠을 찌어 번신(纏身)하니 승승 왓, “너히로 하여곰 오날 모친임 길거하시물 보니 너 위선 효도를 보았다” 하시며 어로만지니, 석씨 승승의 으히 만지물 처음 보고 왓, “오날 모친님이 처음 갖거시물 보오미 침등니 혼히흐읍드니 쏘흔 승승니 으히 만지며 조와하시니 더욱 경스로서니드.” 승승니 미소 왓, “모친님 갖거하신 으히올 닐들 어이 갖거 아니 만지리오?” 석씨 소왓, “만일 더부인이 만지지 안이 하싯든들 평승의 한 변도 만지지 안이 하싯잇가?” 승상 소왓 “그려하건이와 아히 누이소셔”하며 누으니 석씨 으달을 밧다 뉘이고 등축을 멸하니라.

② 공스를 파하고 집의 도라와 문안하고 서당의 나오니 춘향니 마자 왓, “귀후 엇더하신잇가?” 승상 답왓, “관겨치 안이하다마는 너 이번의 병드려 모친님니 일 식 지너미 빅발이 만하이 오직 심여하시라” 하며 옥면의 눈물을 흘니이 춘향 위로 왓, “더부인임 춘츄가 사히 빅발 나실쩌라. 엇지 이렇타시 감탄하시니까?” 승승 왓, “남우 즈식되여 부모게 날마다 영화로 봉양하여도 은혜로 감지 못하거든 노모로 하여곰 침석니 다지 아니키 하니 엇지 불효를 면하리오?”

34) 엄규현은 “<한강현전>의 작가가 남성이었다라면 머느리감을 간택하기 위한 선보는 장면의 묘사가 치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여성들의 예리한 지각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앞의 논문, 5면.)”라 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면모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대의 혼속에 비추어 볼 때, 위씨가 李府에 가서 이씨의 품성을 확인하고 혼인을 결정한 것이 현실적인가에 의문이 든다.



㉠의 예문은 손자들을 엄두에 두지 않던 이씨가 손자들을 보고 기뻐하던 저녁에 강현과 석부인이 나누던 대화이다. 강현은 유복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여 모친이 자녀들로 인해 가빠 하자 비로소 자신도 자녀들을 대한다. 이러한 강현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 모친에 대한 효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어머니가 손자들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도 아이들을 끝까지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석씨와 강현의 문답은 부부간의 일상적이지만 비공개적인 담론을 서사화함으로써, 강현과 이씨의 ‘가문 일으키기’라는 다소 딱딱한 틀 속에 일상생활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확장시킨다. ㉡의 예문은 병으로 쓰러졌던 강현이 다시 공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병으로 마음 고생을 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아들이 쓰러지자 부인은 “음식 다지 아니하고 아침의 점든 머리 진역의 퍽발”이 될 정도로 자식을 염려한다. 이 가운데 자식의 고통에 잠 못 들어 하는 어머니와 이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제가 하사한 술을 먹고 온 아들에게 유복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어머니의 모습, 작품의 결말부에 이부인의 회갑연을 맞이하여 양소저를 포함한 한가의 모든 여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며 이부인의 공덕을 칭찬하는 대목 등이 보인다. 이러한 삽화들은 이 작품이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일상적 면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작품의 사실성과 교훈성을 높이고 있다.

#### 4. <한강현전>의 현실인식과 주제의식

기존의 논의들은 한강현의 유복자로서의 삶에 주목하면서도, 대체로 이 작품의 주제를 ‘인의에 바탕한 가문창달’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유복자로 거듭되는 진한·강현의 삶, 전란에서의 진한의 죽음과 강현의 영달이 과연 17세기라는 현실과 어떠한 맥락도 갖지 않은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따기존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7세기의 전기소설은 전란의 체험이 소설

화되면서 형식에 있어 서사적 편폭의 확대, 사실적 구성, 다양한 사건 등이 두루 나타난다. 주제·소재적인 면에서 전기소설뿐만 아니라 풍유록 역시 전란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면서 전란의 책임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17세기의 장편소설에는 과연 이러한 전란의 체험에 대한 반성이나 반영이 없을까? <한강현전>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전란과 관련하여 고찰함으로써 그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절손의 위기와 유복자에의 애착

조선후기에 가문의 계승 문제와 절손의 문제는 가문의 존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영웅소설에서 대를 아을 아들을 얻기 위해 기차치성을 드리거나, <유효공선행록>과 같이 계후의 문제를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로 자리잡은 것 역시 이러한 사회상의 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활약은 절손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문을 창달하고자 했던 열망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강현전> 역시 한타와 진한의 죽음을 통하여 절손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현전>에 나타난 진한의 죽음은 절손의 문제가 전란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 “너 아마도 스지 못홀지라. 불행호를 당하여도 복중유이가 소중호오니 인통치 마르시고 몸을 소중하여 만일 심남호시거든 일흠을 진흠이라하고 존난 경이라 호소서. 만일 유안을 잇고 지시를 줄못하여 복중이를 그릇치기하면 조선의 죄인되고 후일 날 더면호기 어려울지라. 부디 조심하여 명심호소서.” … 부인이 문왈, “송공 빅세 후에 첩의 복중이 만일 남조 안니면 가모 बाट드리 업소오니 조조 엇지호오릿가? 사라치시를 바라느니라.” 승승 기리 탐식왈, “이난 너의 가라치미 업셔도 부인이 응당 아르시려니와 탁군씨의 지친 이 니시니 취양호기 호고 그 남은 일은 다시 못지 마소서.”

② 슬푸다! 전성의 무슨 죄로 업친을 모르고 편모를 모서 효도를 다하여 짐승(曾參)의 몸니 되조 호엿드니 효심니 부족하여 하늘이 미어 보와 타향의 고향디야 양친의 죽음을 못호니 웃지 혼백인들 올흔 귀신니 더리오? 가련호도 이 몸니 그리 되여스니 뉘 스담을 맞들며 모친과 의논하여 탁군씨의 도 지친이 이시니 취양하여 스담을 맞들게 하옵소서. 슬푸고 슬푸도다. 너의 빅공은 누라서 초조 선령의 장스호여 타향고혼 먼키합고? 헐 맞습 호히 갓 소나 정신니 어질호여 더감호는이다

㉠에서 한타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복종유아를 잘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인 것이나, 양자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후손봉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작품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한타는 죽음에 임해 “만약 유복자가 아들이 아니면 가묘를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라는 위씨의 질문에, 만약 아들이 아니면 탁군 땅의 친척에게 양자를 들여서라도 조상의 제사를 받들 것을 강조한다. 한타 부부의 후손에 대한 집착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타 자신이 독자였기에 한가에 있어 절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안이 었다 할 수 있다.

㉡는 진한이 전갱터에서 죽음에 임박해 이부인에게 보낸 편지로 강현의 탄생을 모른 채, 역시 한가의 사당 향화 이을 것을 걱정하고, 모친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진한 역시 탁군 땅의 친척에게 양자를 들일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강현전>은 가문의 창달이 3대인 강현에 와서 이루어지면서, 여타 소설에서 1대인물에게 주어진 역할을 2대인 이씨가 수행한다. 이들의 삶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진한의 죽음이며, 진한이 전란과정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바로 한가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전란 때문에 맞은 절손의 위기와 그 극복이라 할 수 있다. 강현이 아들 아홉을 낳고 그 아들이 각각 다섯 아들을 낳고 있는 점은 한가에 있어 절손의 문제와 다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준다. <한강현전>에 거듭 나타나는 ‘취양’에의 관심과 강조는 절손의 문제가 현실화된 전란 후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한강현전>에는 진한·강현이 유복자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심각하

---

35) 임병양란은 물질적인 피해 뿐 아니라, 가족 혹은 가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여 가족조직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가문의 제사를 잇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졌다. 17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제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간에 돌아가면서 지냈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강화에 따라 여성은 ‘출가의인’이라는 의식이 확대되면서 양자제도가 강화된다. 『국조방목(國朝榜目)』의 급제자 현황중 양자의 숫자를 살펴 볼 때, 1498~1504년 사이에 161명 중 2명(1.24%)이던 것이 1657~1663년 사이에는 8.11%로 수직 상승하고 이후 점차 감소되다가 174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4쇄, 1994, 603~606면).

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작품의 곳곳에 나타난다. 특히 진한·강현이 2대째 유복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이 유복자의 고난과 그 극복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㉑ “불효자 진환은 제비송서우모친실하고 읍난니다. 도망키 어려오미 인명니라. 엇지 실하(膝下)을 써나 말리 타향이 이 몸 덜줄 아리릿가? 슝름니 세송의 나미 혼을 일리 만호오더 □□ 소항니 제일리라. 할낫 무상하여 업친을 보지 못호고 얼골 모로난 눈물 흘니며 평생 먹은 마음이 양친씨 할효회를 어머입씨 옮겨 점습의 니던즈 하여습드니, 소즈의 정성니 지극지 못호타시로 명친니 미오 보시고, 선령니 불우호스 이 몸니 이 몸니 디여소오니 불효천지 질박더라. ...”

㉒ 한성니 본더 누더 유복자이라. 이런 말을 드러면 비감호 므옵니 속발호미 누물리 문져 나리난지라, 습인의 정상니 불상호미 ... 춘향니 부인씨 드러가 할님이 습인 과거시기를 고호니 부인 왈, “아름답고 착하다 너 자식이여! 은혜을 호 슝름의게 갖치도 호날리 감동호거든 호물며 셋 슝람의게 음덕니 스른니 족히 습더의 나리리니 아람답도드. 스른 더 가 그러 말나” 호시드라.

㉓ 부인 왈, “제 친성니 어질고 문견니 남과 달나 제 부친을 보지 못호였기로 천지간 죄인으로 즈쳐하여 히소를 즐기지 아니호니 이르무로 더인인 힘십이라.” ... 승송니 추연 탄왈, “엇지 슝름 히소 업시리오만는 나난 남과 다른지라. 부친을 뵈옵지 못호여시니 천지간 죄인이라. 엇지 히소를 조와호리오?”

㉑은 진한이 전사하면서 모친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이다. 부친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평생 모친만을 모시고 살려 했던 자신이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된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 그 속에는 평생 모친께 효행을 다하려는 소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진환의 현실에 대한 원망이 배어 있다. 이러한 진환의 모습은 가문의 창달을 위해 전공을 세우거나 훌륭하게 제가하는 다른 장편소설의 유복자와는 다르다. 또한 비록 죽음을 당하여도 정적에 의해 원찬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영웅소설과도 다른 면모이다. 진환의 모습은 진환이라는, 개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세계의 질곡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진환의 죽음은 유복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채, 유복자로서의 고단한 삶을 아들 강현에게 다시

넘겨주고 있다.

㉔는 전란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글을 배운<sup>36)</sup> 강현이 과거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선비들을 도와주었고, 부인이 그렇게 한 것을 칭찬하는 대목이다. 뛰어난 재능으로 단번에 답안을 작성한 강현은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세 선비를 보게 된다. 이들은 과부의 아들, 홀아비 아들, 유복자로서 자신의 급제만을 고대하고 있는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이에 강현은 자신의 처지 역시 유복자임을 이야기하고 이들의 답안을 대신 작성해주어, 이들은 차례로 1~4등으로 급제한다. 이를 안 이부인도 그 행실이 후손에 유익을 끼칠 아름다운 행실이라 칭찬한다. 강현이 세 선비에게 느꼈던 동류의식,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부인의 모습을 통하여 유복자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한편 ㉕은 천자가 내린 술을 마시고 온 강현을 질책하는 이씨의 말이다. 강현은 천지간의 죄인인 유복자로서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책무를 가졌기에 더욱 단정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 2) 전란 체험의 소설적 수용

<한강현전>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전란의 참상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한의 죽음을 통한 이부인의 고난은 전란을 통한 가족들의 고통을 보이고, 특히 진한이 죽은 후 수륙재(水陸齋)를 지내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원귀들의 고백은 임병양란을 겪은 당대인의 참상과 흡사하다. 이는 전쟁을 묘사함에 있어 여타의 영웅소설이나 장편소설이 주인공의 무용이나 전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뚜렷이 구분되며, 몽유록에 묘사되고 있는 전란의 참상과 비견될 만하다.

㉑ 송니 승전하고 도라와 원종필을 서두르스을 호이시고 전장이 죽인 중졸을 위로하러 호시고 살 만 석과 든 만 양식 두시니라. 즈스를 청하여 뵈스장이 삼일 슈육하고 그 날 밤의 도송니 보니 혹 머리도 업시며 팔도 업시며 혹 다리도 업는 귀시니 모와 길거왓. "오날은 비부르도다." 그 죽인 호스람은 청춘 괴질인 얼골리 관옥갓타여 가슴을 안고 음식을 먹지 못호며

36) "부인니 글을 가라치더 호 즈을 이르리 열 즈을 주러호드라. 십 세의 이러々 거의 문중을 이루고 충효호 마암과 순후호 괴질이 날노 시롭드라."

왈, “너이는 주유을 만나 먹으더. 나난 가슴의 뱃허 거서 잇서 먹지 못하니 가히 업드” 하고 오든 길노 도라가거날, 도승니 잇튼날 그 곳을 파보니 호 소년디장니 죽어사니 가슴이 살촉니 뱃허여거날 그 촉을 썩고 도로 무드스니 그날 밤의 도승니 보니 소년니 음식을 먹으며 왈, “오늘은 조흔 음식을 만히 먹으니 당헿호드” 호드라.

② 리시 꽃의 여러 귀신니 스밤으로 도호니 부지기슈라. 너른 틱스중인 모다 서로 이로든, “오늘 호중군니 고향으로 도라가오니 호죽활지다. 실푸다. 우리 뱃골은 귀라 거두어 도라갈고?” 호며 통곡호단 소련의 놀나 씨다 르니 발서 동밤니 밝고져 호엿더라.

위의 예문은 가달의 난이 평정된 후 죽은 영혼들을 위한 수록재를 지낸 후 원귀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소회를 토로하는 대목이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귀신들이 켓밥을 먹으며 즐거워하지만, 결국 자신의 유골조차 거둘 사람이 없음을 한탄한다. 장편소설 가운데 이처럼 전란의 참상과 죽은 이들의 원망을 묘사하는 작품은 없다. 귀신들의 형상은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의 참혹한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낸 몽유록의 묘사와<sup>37)</sup>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가슴에 화살이 박힌 소년장수는 한전환을 의미하며, 이부인이 전란의 유골을 수습하여 돌아갈 때, 꿈에 나타난 원귀들의 통곡은 전란에서의 죽음에 대한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강현전>에서는 전쟁의 원인이나 패배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나 비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달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출전하여 무조건 공격을 명령한 대원수 최강과 때를 기다려 공격할 것을 요구한 중군장 진한의 대립은 패배의 책임이 무모한 대원수에게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달천몽유록>에 나타난 전쟁의 패배 책임에 비판과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sup>38)</sup> 전

37) “혹은 머리가 없는 사람, 혹은 좌우 어깨가 잘려 나간 사람, 혹은 좌우 발이 베어진 사람, 혹은 허리는 있으나 다리가 없는 사람, 혹은 다리는 있으나 허리가 없는 사람 등이 있었는데. 배가 팽팽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은 아마도 물에 빠진 것이리라. 모두 더러카락을 온통 얼굴에 풀어헤치고, 비린내 나는 피가 서로 알켜서 사지가 간혹하니. 그 참상을 볼 수가 없었다.”(윤계선(尹繼善), <달천몽유록(蓬川夢遊錄)>) 신채진(申在鎭)의 <달천몽유록>.,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경, 1998, 217~218면)은 <달천몽유록>이 전장의 참혹성을 묘사함으로써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쟁의 참혹성에 대한 인식은 강현에게서도 드러난다. 전장에서 부친을 잃고 서달의 난에 출전한 강현의 독백은 무력으로 적을 섬멸할 것을 주저한다. 이 속에는 무고한 희생이 자기와 같은 처지-유복자, 절손의 위기-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에 대한 염려가 내포되어있다.<sup>39)</sup> 결국 강현은 격서를 보내어 적의 항복을 받아 무고한 생명을 전장의 원귀로 만드는 것을 막는다. <한강현전>의 전란체험 수용은 전란의 참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란이 가져온 문제에 대한 각성과 그 극복방식을 보여준다.

### 5. 필사기를 통해 본 17세기 독서상황

이 장에서는 <다곡본>의 필사기를 중심으로 17세기 독서상황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신당 승정 귀원 후 병진 씨유 십월 염오일인 삭즉삭 필즉필 효공부즈 지획인법호노라. 연니 니 칙 보시난 니 뉘기란지 회담과 웃지 맞소. 마음이 분요호며 즈즈니 조적형이요 흑흑니 구런지거라. 원근 침존시든지, 연소호 청안니 보시든지, 경부녀가 보시든지 공부녀가 보시든지, 스부녀가 보시든지 서부녀 보시든지, 규중이 장양호는 처녀가 보시든지, 어린하히 십시 안으로 불지라도 죽키 불만호기로 더강 기록호여시니...

38) "살아서도 이미 쓰이지 못하였으니, 죽어서도 또한 무엇을 하리오.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건만, 나를 죽인 자는 누구인고? 임금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가 깊으니, 나라의 일 위급할 때, 대장부 한 번 죽음은, 진실로 아까울 것 없으라. 안타깝도다. 장군이 쉽게 말함이어. 어찌 이처럼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 (윤계선, <달천몽유록>)

39) '너 심각하더 너 세송의 나미 스름은 고스르고 미물도 헛치 마자 호여드니 잊씩을 당호여 허드홀 스름니 만나 죽을 쯔니 잊지 호심치 아니호리오? 서달이 비록 강성호나 또한 스름니오, 천성을 타스니 잊지 오상지도와 충효지를 모르리오? 너 반다시 레의염치와 제도왕도로서 격서를 보니여 항복바드리라. 당힐호지라. 만일 서달이 서닷지 못호고 산호즈호면, 너 오방지선으로 불너 달왕을 잡으다가 버리리라' 이에 대해 엄규현(앞의 논문, 64~67)은 "강현이 무력이 아닌 격서로 적에게 항복을 받으려한 이유는 인의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자신의 부친에 대한 기억과 전란의 참혹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㉔ 원근 다소 침위는 글씨 부고 웃지맛소. 단문 일치 밋진 뜻니 가중의 크는 동성 사촌과 조질규너로 하여곰 혹사 이 칙 보고 썬바들가 심렵하야 여광여취 고초치로 밋겨스오니 회롱달시고 담치맛시고 박장마음소서. 우는 확인즈 필적이라. 이 칙 듀인은 선정 회지선심 후 무침종파 지일가벌 성듀 더 말너 리소저 함규지물이라. 니 심동더 후호호노라.

위의 두 인용문은 필사자의 태도, 독서대상, 필사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㉑에서 필사자는 공자의 춘추 편찬 원칙이었던 ‘더할 것은 더하고 빼는 것은 빼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 필사를 마쳤다고 했는데, 이는 필사자가 작품을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보는 입장에 섰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장편소설을 역사의 일부로 인식했던 당대인들의 의식을 반영하며,<sup>40)</sup> 강현의 대인군자로서의 인품과 효행, 모부인 이씨의 열행을 칭송함으로써 이 작품이 충효열이라는 당대 인성교육에 이상적인 교과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1)</sup> 또한 이 기록은 이 시기 독자층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필사자는 원근 침준, 연소훈 청안, 공부녀, 스부녀, 서부녀, 처녀, 어린 으희 등을 독서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미 많은 여성들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sup>42)</sup>

40) 한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후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규장각본>에 나타나는 공주와의 혼인에서 석씨의 처지를 배려하는 이씨의 모습, 양소저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이부인의 모습, 양소저 친가의 후일담, 여성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는 <한강현전>의 전승과정에 있어 필사자들의 많은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41) ㉑ 니 칙 듀인 한강현은 가위 더인군조뿐 아니라 그 모부인을 이랄진더 땡모가 붓쓰럽고, 한강현의 위의를 말홀진더 소년장원은 리청연을 친압하고 지략은 손오을 압두홀 거시오, 더인풍치는 비록 만나라도 급하야 스사로 회병하고 암힘어스는 우정국을 비고하고 양씨소저 살인 인의지스는 탁무를 증흥하고 부모게 효양은 순증을 썬바드미요, 빅즈천손는 짝즈의을 썬그럽드. 이리하고야 음득이 음실손나? 치치하고 가소롭드. 우리갓튼 호우지몸 회과즈칙호고저하나 역불죽염우요, 혼튼호니 뉴지미취여씨로다.<다곡본>

㉒ 가히 아름답다. 왕더 밋터 왕더 나고 송전에 술니 나고 천지인 상경이라. 춘신효자 나미 또한 열부도 나나니 엇지 그 중이 춘노춘비 업시리요.<영남대본>

42) 이에 대해서는 임치균(조선 후기 소설의 전개와 여성의 역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1682~1683면이 주목할 바 있다. 조태억의 <서주연의 跋>에서도 여항 부녀자의 독서 참여에 대하여 언급된 바 있는데, 이 시기에 이미 소수의 별열 중심이 아닌 다양한 독자층을 바탕으로 한 소설의



②의 기록은 필사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는데, 필사자는 이언적의 후손으로, 처녀시절 친척들을 위하여 필사하고 시집갈 때 이 책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초기의 장편소설이 서울, 혹은 근교의 벌열을 중심으로 형성·유통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의 필사기를 볼 때 이미 영남 지역에서도 일정한 소설유통·향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편소설이 이른 시기부터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43)</sup>

## 6. 결 론

17세기는 전란이 극복되는 한편 새로운 지배체제가 확립되던 시기였다. 중국소설이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읽혀지고, 전란체험이 반영되면서 이 시기 들어 소설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주생전>·<최척전> 등으로 대표되는 전기소설은 이전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전란 체험을 반영하는 등 현실의식이 작품 속에 강하게 투영되었다. 몽유록의 경우에도 <달천몽유록>이나 <피생몽유록> 등에서의와 같이 전후 사회에 대한 인식과 현실비판의식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장편소설은 중국 연의소설을 밀저름으로 하여,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동시에 가문 내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사씨남정기>·<창선감의록>·<소현성록>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산물이며, 이를 통한 도덕적 교화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롭게 선보인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품의 구성이나 묘사에 있어 완성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한강현전>은 장편소설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보여준다. 우선 <한강현전>은 한타에서 진한·강현으로 이어지는 3대담의 구성과

---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다곡본>이 성주댁 이조저의 합규지물이었다는 점과, <영남대본>이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은 <한강현전>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할 수 있다.

연작 <구룡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이 시기에 이미 3대담 형식과 연작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대담의 서술에 있어 3대인 강현에게 큰 비중을 줌으로써 일대기적인 면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sup>44)</sup> <한강현전>의 가문 창달과정에 정치적 적대관계나 가문 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가문의 위기와 창달이 전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시기 계후(繼後) 문제를 다룬 <창선감의록>이나, 제가 문제를 다룬 <소현성록>, 이상적 부녀관을 제시하고 있는 <사씨남정기>와는 다른 방식의 가문소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강현전>은 당대의 커다란 문제였던 절손의 위기와 유복자에의 애착, 전란 체험을 수용함으로써, 장편소설에서도 전란 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었음을 알려준다. <한강현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삽화들은 이후 장편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삽화들이다. <한강현전>은 전설·현현·계모박대담 등 다양한 삽화들을 수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한 구성을 탈피하고 작품의 분량을 늘이는 동시에 작품의 흥미를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한강현전>은 전란의 참상과 유복자의 문제를 형상화함으로써, 가문소설의 초기 문제의식이 전란에 따른 가문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있음을 보여준다.

44) 이 작품과 후편이 모두 내용적으로는 <○○삼대록>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전>의 題名을 가지고 있다는 점, 3대록 형식이 미숙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 작품이 초기작임을 의미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and its way of shaping on  
*<Hanganghyeonjeon>*(한강현전)

Kang, In-beom

*<Hanganghyeonjeon>* is written in the 17th century, and described the crises and the subjugation of *Han* family. *<Hanganghyeonjeon>* belongs to family novel, *<Kuryongjeon>*(구룡전) is the latter part of this nove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reality and its way of shaping on *<Hanganghyeonjeon>*.

Despite of containing the three generation structure, actually it is focused on the wife-the second generation-, and the son -the third generation-. So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three generation structure and the structure of *<Hanganghyeonjeon>*. In this novel, the main stories are connected with the death of father, and it described the hardness of the wife and son. The fathers of *Han* family died in disease and battle, this is the important difference with the other the full-length novel. *Han Gang-hyeon* and her mother's life -as a posthumous child and widow- show the contemporary concerns and described its hardness.

It contains the various kinds of episodes-faithful horse, revelation of a father-in-law, marriage demanded by the King, oppression by a stepmother-, these are reformed in the contexts and created the novelistic interests. Also it described the daily family life with a delicate power of observation, like the private convers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mother and son, feast of women. These episodes are common in that

times, writer adopted these episodes for extending the length of the work and the reflected the contemporary concerns.

In spite in focused on the family promotion, it is also focused on the disconnection of the generations and the attachment for a posthumous child. The life of *Jin-han*(진한) and *Gang-han* described the hardness and the duty of a posthumous child, it was one of the main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in that times. The other aspect of this novel is the novelistic shaping on the disastrous scene of the war. As we knew, the contemporary *Jeongi-sosul*(전기소설) and *Mongyorok*(몽유록) are described the disastrous scene of the War-Imji War, *Byungjahoran*- in the 17th century. *<Hanganghyeonjeon>* also described the disastrous scene of the war, it is very unique among the full-length novel. It means that the stories of the war are continuously caught by the novel of the 17th century. The copying note of *<Hanganghyeonjeon>* implied that there were some local movement of the novelistic circulation. And the various readers are already existed in the 17th century.